

광주·전남 폭염 기습... '더위와의 전쟁' 시작됐다

예년보다 일주일 빨리 온 무더위... 담양·곡성 올 첫 폭염주의보
30도 웃도는 날씨 지속... 온열 질환·고수온 어업 피해 방지 비상

여름철 더위와의 전쟁이 시작됐다. 폭염이 평년보다 빨리 찾아오면서 온열질환자가 전년보다 증가하는 등 노약자 건강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또 이른 폭염에 따라 해수면 온도도 덩달아 상승하면서 전남지역 어가들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전남지역 폭염주의보 발령일이 점차 앞당겨지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1일 오후 처음으로 전남지역에서는 담양과 곡성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폭염주의보 발효는 지난해보다 6일 빨랐다.

광주·전남 첫 폭염주의보 발령일이 지난해에는 6월 17일이었지만, 2022년 6월 19일, 2021년 6월 30일로 매년 앞당겨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날 곡성(석곡)지역 하루 최고 기온은 33.4도, 담양(봉산) 하루 최고기온은 33도를 기록했다. 이날 광주와 순천도 각각 낮 기온이 32.3도, 30.8도까지 오르며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다.

빨라지는 더위로 인한 지역 온열환자도 크게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이날 9일까지 광주에서 1명, 전남에서 7명 총 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지난해 동기(2명)보다 4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여름철 온열질환자가 289명에 달하고 이중 3명이 사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앞서 기상청은 올해 6~8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클 것(80%)으로 예측했다. 봄철에 상승한 열대 인도양의 해수면 온도가 지속될 경우 대류 활동이 활발해 우리나라에 따뜻한 남풍류 유입이 강화돼, 평년보다 여름철 기온이 높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엘니뇨가 중립 상태로 접어들지만 바닷물의 온도가 식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올 여름까지는 수온이 높은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해수면 온도의 상승폭도 커지면서 전남지역 어민들이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달 22일 '2024년 여름철 수온 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고수온 예비주의보가

지난해보다 일주일 가량 빠른 6월 하순 발령될 것"이라며 "특히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수온으로 고수온 특보가 한 달 이상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5월 하순(5월 18~31일)에 이미 남해 연안의 수온이 18.5도로 평년보다 1도 가량 높고 전년보다도 0.5 가량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높은 온도를 좋아하는 해파리가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7일 전남 해역에서 보름달물해파리가 100㎡당 평균 16마리(최대 70마리) 관찰됨에 따라 해파리주의보를 내렸다. 이는 역대 가장 빠른 시기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 6월 8일, 2022년 6월 21일 발령에 비해 갈수록 빨라지는 추세이다. 보름달물해파리의 경우 100㎡당 5개체 이상 확인되면 해파리주의보가 내려진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해파리인 보름달물해파리는 독성은 약하지만 대량 발생 시 어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수온에 민감한 양식장 특성상 양식어가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이미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올해 더위가 빨라지면서 더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남에선 고수온 탓에 7월부터 9월까지 여수·완도·진도 153개 어가에서 11개 양식어종 645만여 마리가 집단폐사했다.

어민들은 아직까지는 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리 먹이를 적게 주는 등 고수온 피해에 대비하고 있다.

김광근 완도군 전복협회 회장은 "지난해 높은 수온 탓에 전복이 때로 폐사하면서 10t 생산하던 사람들이 5t 밖에 생산 못하는 등 피해가 컸다"며 "또 어민들은 수온이 평년보다 빨리 오르면 전복의 폐사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복이 다 크기 전에 출하해야 하는 만큼 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이 고수온 피해 예방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고수온 예비특보 발표 기준을 기존 수온 28도에서 25도로 낮춘다. 또 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

한편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당분간



담양과 곡성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11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광주비엔날레 광장에 설치된 분수대에서 아이들이 물놀이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mjna@

낮 최고기온 30도를 웃도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광주·전남 낮최고기온은 27~33도까지 오르겠고, 13일은 아침 최저기온은 16~21도, 낮 최고기온은 28~34도로 분포할 것으로 예보됐다. 12일 구례와 곡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5mm 내외의 소나기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낮 기온이 떨어지겠으나, 소나기가 그치면 습도가 높아져 기온이 빠르게 올라 무덥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구례, 순천, 화순 등 동부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될 가능성이 있다"며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물을 충분히 마시고 영유아·노약자·만성질환자 등은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기업 간 '갈기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와 '키안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가 체결됐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 교류 및 투자 활성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70년
민심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김 얼마나 인기길래...

전남도, 축구장 6400개 면적 신규양식 허가 요청

전남도가 전남지역 바다에 축구장(한 개 7100㎡) 6421개 규모의 김 양식장을 새롭게 조성하겠다고 정부에 신규 허가를 요청했다. 해양수산부가 오는 7월부터 전남에만 축구장 2300개 규모의 신규 양식장(1658ha)을 허가한 상태지만 세계적인 김 수요량 급증에 따른 공급량 확보를 위해서는 추가 조성이 절실하다는 게 전남도 판단이다.

전남도는 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해수부가 허가한 신규 김 양식장(1658ha) 외에 추가로 4559ha 규모의 김 양식장 개발 허가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는 그동안 신규 김 양식장 면허를 제한해왔지만 해외 시장에서의 김 선호도 상승으로 인한 수출량 증가, 일본의 김 흉작 등이 맞물리면서 국내 물값·마린급 가격 상승세로 이어지는데 따라 수급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는 7월부터 전국적으로 2700ha(1ha는 1만㎡)의 신규 김 양식장 조성을 허가한 바 있다.

전남도의 경우 유럽·아프리카·중동 등 122개국으로 김 수출이 확대되면서 올해 물값 생산량이 전년도에 견줘 1만 7000t이 늘어난

40만 8000t에 달했고 생산액도 3500억원 증가한 8000억원을 달성했다.

올해 조성되는 신규 양식장 규모는 전남이 1658ha로 가장 많고 충남(470ha)·전북(470ha), 부산(52ha), 경기(51ha) 등 전국적으로 2700ha(1ha는 1만㎡)에 이른다.

전남지역에 신규 김 양식장이 조성되는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새로 생기는 양식장 면적도 전국에서 가장 넓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이렇게되면 내년부터 물값 1만 240t을 더 생산할 수 있는 양식장 기반이 마련되면서 양식 소득도 연간 약 240억원을 추가로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남도 분석이다.

하지만 세계적인 김 수요량 급증에 따른 안정적 공급, 어민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추가 양식장 조성이 절실하다는 게 전남도 입장이다.

전남도는 다음주 해수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추가 양식장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같은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지유 기자 dok2000@kwangju.co.kr

尹대통령 "한-터르크 경제협력 속도 높여야"

양국 비즈니스 포럼 참석 기념사

트루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양국은 트루크메니스탄의 명마 '아할 테케'처럼 경제 협력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트루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터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인 트루크메니스탄과 산업화 경험 및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앞으로 함께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할 테케'는 트루크메니스탄을 상징하는 말로 독특한 금속성 광택을 띠는 황금빛 털로 유명한 명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한층 더 가까워진 토대는 양자서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며 실질적 성과를 먼저 만들어낸 경제인 여러분의 노력"이라며 연단에서 양국 경제인에게 박수를 보냈다.

그러면서 "먼저, 양국 간 에너지 자원 분야의 협력을 한층 고도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한국기업들이 트루크메니스탄의 플랜트 사업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화, 그 이상의 새로움

The new E-Clas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4-5001 & 광주 인종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센터 BP 062)942-7200/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방울대로 565(도천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 220 d 4M EX · 배기량:1999, 공차중량:1975, 자동9단, 복합연비:15.4(도심연비:13.6, 고속도로연비:18.4), 등급:2, 복합CO2 배출량:122
· E 300 4M EX · 배기량:1999, 공차중량:1900, 자동9단, 복합연비:11.4(도심연비:9.9, 고속도로연비:14.6),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7
· E 300 4M AMG line · 배기량:1999, 공차중량:1900, 자동9단, 복합연비:11.4(도심연비:9.9, 고속도로연비:14.6),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7
· E 450 4M EX · 배기량:2999, 공차중량:1970, 자동9단, 복합연비:10.5(도심연비:8.9, 고속도로연비:13.4), 등급:4, 복합CO2 배출량:165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본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